

# 琴歌譜 長歌形 및 향가 樂句律의 실상

김종규\*

<차 례>

1. 서언
2. 신라가의 형태
3. 주좌가의 형태
4. 결어

## 1. 서언

향가의 형태에 대한 고찰을 위한 음악적 측면의 현전하는 국내 자료는 주지하다시피 너무도 취약하다. 그러나 일본의 고대 자료에는 향가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왕의 고찰 결과에 의하면 신라의 향가 및 고대일본의 기가장가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적 친연성은 자못 큰 것이며, 기가장가의 상당수는 향가의 형태적 계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본고가 주된 고찰 대상으로 하는 금가보 장가가 실린 『금가보(琴歌譜)』는 고대 일본의 궁중음악 교습서로서 천원(天元) 4년(A.D 981)에 대가사(大歌師) 다안수수(多安樹手)가 이왕에 있었던 궁중음악 악보의 고본을 전사(傳寫)한 것으로서, 제1권만 현전하고 있다. 이는 10세기 이전 고대

---

\* 대불대학교

일본 궁중가요의 형식 및 악곡체제를 알 수 있는 일본 최고(最古)의 악보로서, 21수의 궁중가요 악보 중에서 문면가사(文面歌詞)와 보면가사(譜面歌詞) 양면이 다 같이 7구체형 이상으로 된 장가가 9수 실려 있다.

그런데 금가보 장가는 고대일본의 사서인 『고사기(古事記)』 및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실린 기기장가(記紀長歌)의 음악적 실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금가보 장가와 기기장가 중에서도 향가의 형태적 계승에 해당하는 <아유타진형> 및 <신라가형>의 가요가 지닌 자료를 근거로 하여 8구체 향가 및 사뇌가의 형태와 그 후대적 전개 of 실상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특히 『금가보』에 드러난 바 그 음악적 실상을 통하여, 향가의 악곡 체제 중에서도 단위악구(單位樂句)의 가락이 지닌 기본적인 정형률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를 찾고자 시도한다. 향가의 단위악구가 지닌 정형률을 파악하는 작업은 곧 향가 자체의 음악적 체제에 대한 이해 물론, 더 나아가 향가와 그 이후의 고려가요 및 시조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바 형태적 계승관계를 밝히는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기기장가가 향가의 형태적 계승에 속한다는 고찰 결과는 이왕의 줄저에서 도출된 바 있다. 즉 기기장가 중에서 향가의 형태적 계승에 해당하는 가요들을 크게 분류하면 주로 8구체형과 그 발전형인 9구체형을 포함하는 <아유타진형(阿遊陀振形)> 가요들과 그리고 10구체형과 그 발전형인 11구체형을 포함하는 <신라가형(新羅歌形)> 가요들이 있다. 그리고 8구체형과 9구체형의 기기장가 26수 중에서 <아유타진형>에 속하는 것은 모두 23수가 되며, 아울러 10구체형과 11구체형의 기기장가 15수 중에서 <신라가형>에 속하는 것은 모두 14수가 된다. <신라가형>에 속하는 가요 14수와 <아유타진형>에 속하는 가요 23수의 합(合)은 37수인데, 이는 단식기기장가(單式記紀長歌) 총수 48수의 77%에 해당한다.<sup>1)</sup>

물론 줄저 『향가의 형식』 이후 지금까지 10 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새로

1) 김종규, 『향가의 형식』(도서출판 대한, 1994), 261~291쪽.

운 방법론에 따른 새로운 고찰 결과가 도출될 여지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리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의 통계에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형태적 계승관계의 긍정적인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금가보의 악보면에는 일부분에 국한된 음정의 표기와 그리고 본음질 기준의 2간박(二間拍) 표기, 여기에다 아직 실상이 밝혀지지 않은 음악적 표기 등 기타의 표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타 표기들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데다가, 본고가 고찰 대상으로 하는 바 단위악구의 정형률을 밝히는 작업은 가사 자체의 실상만으로도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타의 음악적 표기는 일단 고찰 대상에서 보류하기로 한다.

## 2. 신라가의 형태

### (1) 신라가가 사뇌가형인 근거

금가보 장가인 「신라가(新羅歌)」[siragiuta]는 금가보 21가로서 『기기(記紀)』에서 고사기 78가와 「일본서기 69가」로도 중출(重出)하기 때문에, 금가보 장가임과 동시에 기기장가에 속하는 가요에 해당한다. 윤공왕(允恭王)(412~453)의 물년(452)에 태자인 경태자(輕太子)가 여동생인 경대랑녀(輕大郎女)를 사랑하여 부른 가요라고 기록되어 있다.<sup>2)</sup>

고사기 「신라가」

---

2) 「금가보 21가」 주기(注記).

- |                   |                        |
|-------------------|------------------------|
| 1) あしひきの<br>(미상)  | 2) 山田を作り<br>산전을 일구고    |
| 3) 山高み<br>산이 높아서  | 4) 下桶を走せ<br>땅속 水管을 문듯  |
| 5) 下問ひに<br>물래 찾아온 | 6) 我が問ふ妹を<br>내 찾아온 아내를 |
| 7) 下泣きに<br>남몰래 우는 | 8) 我が泣く妻を<br>나의 우는 아내를 |
| 9) 今夜こそは<br>오늘밤이야 | 10) 安く肌觸れ<br>맘껏 살을 맞대자 |

신라가(新羅歌) 형태가 사뇌가의 형태적 계승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신라가(新羅歌)」의 가요명(歌謠名)과 관련하여 일본의 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장은, 일본 고대가명(古代假名)의 표기인 ‘지량(志良宜)’나 ‘자량(茲良宜)’의 의미는 신라(新羅)라는 나라이름을 의미하는 일본어 しらぎ [시라기, siragi]가 아니고, しりあげ [시리아게, siri a ge] 즉 가창에서 노래의 끝부분을 특별히 높여서 부르다는 의미의 말 ‘고상(尻上)’이 축약된 しらげ [시라게, sirage]이기 때문에, 창법의 명칭에서 유래한 가요명이라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지량(志良宜)’나 ‘자량(茲良宜)’의 ‘의(宜)’가 ‘げ[게, ge]’가 아닌 ぎ[기, gi]의 음가를 지녔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신라가(新羅歌)」라는 가요명이 성립된다.

그런데 『금가보』에 쓰인 가명 가운데 ‘의(宜)’가 ぎ[기, gi]의 음가를 지녔다는 중요한 근거가 나타나 있다. 즉 같은 『금가보』의 가요인 「이세신가(伊勢神歌)」(금가보 6가)의 보면가사 중에 또 하나의 ‘의(宜)’가 가명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先)’의 훈독 ‘사기[sagi]’의 ‘ぎ[gi] 乙類가 ‘의(宜)’로 표기된 점에 근거하여, ‘자량(茲良宜)’의 ‘의(宜)’도

3) 横山青娥, 『日本詩歌の形態學的 研究』(武藏野書院, 1961), 75쪽.

‘ぎ[gi]乙類의 표기인 것이 분명히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량의(茲良宜)(siragi)’는 나라이름 しらぎ [시라기, sirgi] 곧 신라(新羅)라는 나라이름의 가명표기가 되는 것으로 고찰된 바 있다.<sup>4)</sup> 따라서 일본 고대 가명(古代假名)의 표기인 ‘지량의가(志良宜歌)’나 ‘자량의가(茲良宜歌)’의 의미는 신라가(新羅歌) 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② 사녀가와 「신라가」는 그 친연성의 역사적 근거가 존재한다. 「신라가(新羅歌)」의 작자로 기록된 경태자의 부왕인 윤공왕(412~453) 43년 왕 자신이 사거했을 당시의 『일본서기』의 기록에,

天皇崩時年若干於是新羅王聞天皇既崩而驚愁之貢上調船八十艘及種種樂人八十。<sup>5)</sup>

(천황이 붕하니 그 때 많지 않은 나이였다. 이에 신라왕이 천황의 붕함을 알고 놀라고 슬퍼하여 조선 80척과 여러 종류의 악인 80명을 공상하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신라왕이 일본왕에게 공상(貢上)하였다는 언투는 실제와 다르다. 고대 일본에서 자국의 위상을 터무니 없이 상대국보다 일방적으로 높이는 외교적 관행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 기록에서는 신라에서 조문사절과 함께 악인(樂人) 80인을 보내서, 이들이 약 1년간 일본의 궁중에 머물다 돌아온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윤공왕의 장례 도중에 그 아들 경태자가 여동생과의 불륜적 사랑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던 과정에서, 「신라가」를 노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는 당시 신라의 악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궁중에 전해진 뒤, 경태자의 사연에 부회된 것으로 파악된다.

4) 김종규, 위의 책, 154~158쪽.

5) 『日本書紀』, 권제 13, 允恭王 42년 春 正月.

③ 「신라가」는 형태면에서도 사뇌가와 공통된다.

- 1) ~ 4) 4개구 산전을 일구는 화전농의 생활고
- 5) ~ 8) 4개구 땅속 관개수로처럼 숨겨야 하는 사랑
- 9) ~ 10) 2개구 속박을 박차고 사랑을 성취하는 환희

위와 같이 구수율 (4.4.2) 10구체의 3장구조를 지닌 「신라가」는 장구조 및 구수율의 측면에서도 사뇌가 형태와 공통된다.

④ 「신라가」의 악보에서 제1구와 제2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5간            1) 阿志比幾能  
                   1 2 3 4 5  
                   (미상)

16간            2) 夜万多阿阿乎於於於於於都久利伊伊移夷移伊移伊移移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산전을 일구고

제1구는 「신라가」에서 최단구(最短句)인데 그에 이어지는 제2구는 최장구(最長句)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가락의 길이에 있어서 이는 매우 대조적인 구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신라가」에서 최단구의 초구(제1구)에 이어 매우 긴 장악구(제2구)가 연속되는 특수현상은 초두에 해당하는 제2구에서 시가적 정서를 1차적으로 고조시키는 긴 가락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예비단계인 초구에서부터 미리 숨고르기를 하는 이른바 조두현상(調頭現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두현상은 사뇌가의 초구가 음절수에 있어서 최단구(最短句)인 점과 관련된다. 즉 음수율에 정격이 존재하지 않는 사뇌가의 초구가 「신라가」의 초구처럼 짧은 가창의 가락을 지니게 되면, 그것은 음수율에 반영되어 음절수에 있어서 최단구가 되기 마련이다.

⑤ 「신라가」의 『금가보』 보면가사 제9구초에는 다음과 같이 감탄사 '試夜(시야)'가 존재한다.

9) 試夜 已受字字已於會 (시야 오늘밤이야)

그런데 이 감탄사 '試夜(시야)'는 사뇌가에서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제9구초의 감탄사 '아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감탄사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상의 논거는 곧 「신라가」가 사뇌가형의 형태적 계승임을 밝혀 주는 것이다.

## (2) 신라가 악곡의 체제

「신라가」 악곡을 살펴서 단위악구율의 정형성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고자 한다. 「신라가」를 통하여 밝혀진 사뇌가 악곡의 실상은 그 형태적 계승에 속하는 후대의 고시가들이 지닌 악곡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가보 「신라가」의 보면가사

- |     |   |
|-----|---|
| 5간  | 1) 阿志比幾能<br>1 2 3 4 5<br>(미상)   |
| 16간 | 2) 夜万多阿阿乎於於於於於都久利伊伊移夷移伊移伊移移<br>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br>산전을 일구고 |
| 6간  | 3) 夜万多阿何良阿<br>1 2 3 4 5 6   |

- 산이 높아서
- 8간 4) 志夷太備乎和試世  
1 2 3 4 5 6 7 8  
水管을 몰래 문듯
- 7간 5) 志太止比爾夷伊  
1 2 3 4 5 6 7  
몰래 찾아온
- 8간 6) 和阿我止於布都万  
1 2 3 4 5 6 7 8  
내 찾아온 아내를
- 7간 7) 志多奈伎爾伊移  
1 2 3 4 5 6 7  
남몰래 우는
- 7간 8) 和阿我奈阿久都万  
1 2 3 4 5 6 7  
나의 우는 아내를
- 7간 9) (試夜) 己受宇宇己於曾 (감탄적 반복구)  
1 2 3 4 5 6 7  
오늘밤이야
- 17간 10) 己受己於於於於於於於伊母爾移伊移伊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오늘밤이야 아내에게
- 14간 11) 夜須宇久波太布宇禮亞亞亞亞亞  
1 2 3 4 5 6 7 8 1 2 3 4 5 6  
맘껏 살을 맞대자
- 7간 12) 夜須宇久波太布禮 (종말반복구)  
1 2 3 4 5 6 7  
맘껏 살을 맞대자

후소절의 반복현상이 주목된다. 제9구와 제10구에 ‘己受宇宇己於曾(오늘밤이야)’의 부분적 반복이 있고, 제11구와 제12구에도 ‘夜須宇久波太布禮(맘껏 살을 맞대자)’의 반복이 있다. 그런데 제11구와 제12구의 반복은



완전한 반복인데 비하여, 제9구와 제10구의 반복은 원형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완전한 반복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사기 「신라가」의 가사에는 제9구의 실사가 ‘今夜(오늘밤이야)’ 기록되어 5음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사기의 기록은 금가보보다 260여년이 더 오래된 원형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가요의 끝에서 이루어진 제11구와 제12구의 반복은 〈종반복(終反復)〉으로, 그리고 제9구와 제10구의 반복은 종반복과는 상대적인 위치라는 의미에서 〈선반복(先反復)〉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악보의 가사는 사뇌가형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신라가」 형태가 사뇌가형의 형태적 계승이라는 고찰 결과에 따르면 「신라가」 곡형의 후소절에도 〈선반복(先反復)〉과 〈종반복(終反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근원적으로는 사뇌가의 형태는 「신라가」의 곡형인 구수율 (4.4.4)의 12구체 3장구조와 동일한 형태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가 형태의 공통성에 입각하여 「신라가」의 단위 악구율을 통한 사뇌가형의 단위 악구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단위악구의 가락길이 지닌 정형률은 일정한 기본단위들의 모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단위를 ‘간(間)’으로 설정한다. 각구의 간수(間數)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기에 앞서 ‘간(間)’에 해당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인한다. 금가보 악보면의 악구에 나타난 ‘간’을 채우는 것은 실사로 이루어진 가사 이외에도 악주여음(樂奏餘音), 감탄사, 그리고 휴지(休止)가 있다.

『금가보』 악보면의 기록 관행에 대한 일반적 전제를 제시한다.

① 가사의 모든 음절은 크게 음수율 (5.7)조 가사의 본음(本音)과 그 본음의 모음을 변화스럽게 다시 발성한 속모음(屬母音)으로 나뉜다.

② 속모음은 대문자로 표기한 대모음(大母音)과 소문자로 표기한 소모음(小母音)으로 나뉜다.

③ 대모음은 본음과 대등한 크기의 대문자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간’으

로 인정되지만, 소모음은 소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본음 및 대모음의 '간' 안에서 변화를 주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대문자로 표기된 본음과 대모음을 '간'으로 인정하여 분석하면, 악구가 지닌 간수로 본 분포는 대국적으로 단악구(短樂句)와 장악구(長樂句)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적은 간수의 구 즉 단악구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8개구가 있다.

- 5간구 -- 제1구
- 6간구 -- 제3구
- 7간구 -- 제5구, 제7구, 제8구, 제9구, 제10구
- 8간구 -- 제6구, 제8구

장악구(長樂句)는 다음과 같이 8간체제에 비하여 간수(間數)가 2배수 가량에 해당하는 배악구(倍樂句)로서, 3개구가 있다.

- 14간구 -- 제11구
- 16간구 -- 제2구
- 17간구 -- 제10구

그런데 악구에는 대개 악주여음과 같이 표기되지 않은 비실사적(非實辭的) 부분이나, 휴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닌 단악구 8개구 중에서 제일 긴 것은 8간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배악구 3개구 중에서 17간구(제10구)는 2배수에 해당될 수 없는 홀수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짝수를 이룬 14간구(제11구)와 16간구(제2구)가 남는데, 이 2개의 배악구 중에서 여음과 휴지를 수용할 여지가 더 큰 것은 16간구(제2구)에 해당한다. 이 16간구는 단악구 중에서 여음과 휴지를 수용할 여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난 8간구의 2배

수에 해당하는 바 정확한 배악구인 점에서 합치한다.

그렇다면 단악구가 9개구로서 다수이고 배악구가 3개구로서 소수인 점에 의거하여, 「신라가」에 있어서 악구단위의 일반적 길이는 서정시가의 범세계적인 일반적 악구율에 해당하는 바 8간체제 1단위 위주의 단위악구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3. 주좌가의 형태

#### (1) 주좌가의 개괄

금가보 장가인 「권주가(勸酒歌)」( 금가보 19가 )와 「사주가(謝酒歌)」(「금가보 20가」), 이 2수의 화답가를 아울러 「주좌가(酒坐歌)」라고 한다. 「권주가」는 고사기 39가,와 일본서기 32가 로, 「사주가」는 고사기 40가 와 「일본서기 33가 로, 중출하기 때문에 이들 가요는 금가보 장가임과 동시에 기기장가에도 해당하는 가요들이다.

먼 곳에서 제사하고 돌아오는 응신왕(應神王)을 맞이하여 그의 모친 신공왕후(神功王后)가 술을 권하며 「권주가」를 부르자, 어린 응신왕을 대신하여 재상인 무내숙네(武內宿禰)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사주가」를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sup>

향가형이 고대 일본에서 수용된 이후 보여주는 8간체제 단위악구화의 보다 발전된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신라가」와 근원적으로 공통된 형태이면서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를 보인 주좌가」의 형태를 살핀다.

고사기 「권주가」

---

6) 「금가보 20가」(十六日節 酒座歌 二). 注記.

- |                      |                              |                            |
|----------------------|------------------------------|----------------------------|
| 1) この御酒は<br>이 귀한 술은  | 2) 我が御酒ならず<br>내 빛은 술 아니요     |                            |
| 3) 酒の司<br>kusinokami | 4) 常世にいます<br>tokoyoni i masu |                            |
| 5) 石立たす<br>석상세우신     | 6) 少名御神の<br>소명어신님께서          |                            |
| 7) 神壽き<br>신께 빌고      | 8) 壽き狂ほし<br>빌어 열광하고          |                            |
| 9) 豊壽き<br>풍요 빌고      | 10) 壽き廻し<br>빌어 돌으시고          |                            |
| 11) 獻り來し<br>바쳐 올리는   | 12) 御酒ぞ<br>귀한 술              | 13) 残さず飲せ ささ<br>남김없이 드오 자자 |

고사기 「사주가」

- |                       |                             |                         |
|-----------------------|-----------------------------|-------------------------|
| 1) この御酒<br>이 귀한 술을    | 2) 醸みけむ人は<br>빚어낸 사람이야       |                         |
| 3) その鼓<br>그 太鼓로써      | 4) 臼に立てて<br>술독삼아 세우고        |                         |
| 5) 歌ひつつ<br>u tahitutu | 6) 醸みけれかも<br>kamikerekamosi |                         |
| 7) 舞ひつつ<br>춤추면서       | 8) 醸みけれかも<br>술 빚어 내었으리      |                         |
| 9) この御酒の<br>이 귀한 술은   | 10) 御酒のあやに<br>귀한 술 아야       | 11) 甚樂し ささ<br>참으로 좋네 자자 |

『기기』 양서에 중출하는 두 개의 「권주가」는 거의 일치하는 문형 13구 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권주가」에 화답하는 「사주가」는 문형 11구 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짝을 이룬 「권주가」 자체도 그 원형이 문형 11구체형이었는데 후대에 증구(增句)되었을 가능성을 고찰한 바 있다. 그 결과 「권주가」의 문면가사 중 제7구와 제8구 이 2개구가 중출가인

「고사기 39가 의 가사에는 4개구로 분구(分句)됨으로써, 전체의 구수율이 문형 13구체로 증구된 현상에 근거하여, 이를 <권주가형(勸酒歌形) 분구 현상(分句現象)>이라 지칭한 바 있다.<sup>7)</sup>

따라서 <권주가형 분구현상> 이전, 원형 「권주가」의 문형은 다음과 같다.

- 1) ~ 4) 4개구 술의 신성성을 찬양함
- 5) ~ 8) 4개구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 9) ~ 11) 3개구 술을 권하는 말

이는 구수율 (4.4.3)의 11구체를 지닌 3장구조에 해당한다. 「사주가」의 문형은 다음과 같다.

- 1) ~ 4) 4개구 신성한 祭酒의 양조과정
- 5) ~ 8) 4개구 양조 과정의 의식
- 9) ~ 11) 3개구 감사하는 말

이 「사주가」도 역시 「권주가」와 같이 구수율 (4.4.3)의 11구체를 지닌 3장구조에 해당한다.

## (2) 주좌가 악곡의 체재

### 1) 권주가

금가보 「권주가」의 보면가사

- 6간      1) 許能於美吉伊伊伊波阿  
          1 2 3 4 5 6

7) 김종규, 앞의 책, 188~189쪽.

- 이 귀한 술은
- 8간 2) 和可阿阿美伊吉伊奈良受  
1 2 3 4 5 6 7 8  
내 빛은 술 아니요
- 6간 3) 久志能於可阿阿阿美移  
1 2 3 4 5 6  
술 빛으신 분
- 7간 4) 等許余於於於邇伊伊万須  
1 2 3 4 5 6 7  
상세에 계십니다
- 6간 5) 伊波多太阿須宇  
1 2 3 4 5 6  
석상 세우신
- 8간 6) 須久奈阿美伊可味能 (之伊夜)  
1 2 3 4 5 6 7 8  
소명어신님께서 (시야)
- 6간 7) 等余於保於於於吉伊  
1 2 3 4 5 6  
풍요 빌어
- 8간 8) 保於於吉茂於於止保之 (之伊夜)  
1 2 3 4 5 6 7 8  
빌어 돌으시고 (시야)
- 5간 9) 可无宇保於於吉  
1 2 3 4 5  
신께 빌어
- 7간 10) [保於吉]久宇流保之 (志伊夜)  
1 2 3 4 5 6 7  
빌어 열광하고 (시야)
- 8간 11) 万都理伊伊許於於之伊  
1 2 3 4 5 6 7 8  
바쳐 올리는
- 4간 12) 美吉伊敍於於於  
1 2 3 4

- 귀한 술
- 7간 13) 阿佐受遠西佐阿阿阿  
1 2 3 4 5 6 7  
남김없이 드오 자자
- 7간 14) 佐阿阿佐受遠西 (亞夜) —— 종말반복구  
1 2 3 4 5 6 7  
남김없이 드오 (에야)

위 악보가사에 의하여 단위악구율의 간체제에 따른 정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라가」에서 확인된 8간체제의 단위악구율이라는 정형에 근거하면, 본가의 감탄사 ‘之伊夜’는 단위악구의 8간체제 안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② 제12구가 ‘美吉伊敍於於於(귀한 술)’와 같이 3간구의 반구(半句)로 축소되는 〈선반복〉의 해체를 보인 것은 사뵈가형이 고대 일본에 들어가서 적응해 가는 과정의 변화라 할 수 있다.

③ 제9구가 5간으로 단구화한 것은 〈권주가형 분구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가락의 축소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④ 후소절의 단위악구 길이에 있어서는 「신라가」는 배악구의 규모에 준한 길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가에서는 이 후소절의 구들도 8간 이하로 단위악구화하였다.

위의 고찰 결과에 의하면 결국 본가의 모든 단위악구는 8간체제이며, 1개연은 16간체제에 해당한다. 이는 8간체제화의 완결을 의미한다.

## 2) 사주가

금가보 「사주가」의 보편가사

- 6간 1) 己能美枳伊遠於  
1 2 3 4 5 6  
이 귀한 술을
- 8간 2) 可美祁亞牟比度波  
1 2 3 4 5 6 7 8  
빛어낸 사람이야
- 7간 3) 蘇乃都豆宇見伊  
1 2 3 4 5 6 7  
그 태고로써
- 5간 4) 宇有須邇多提 (牟志伊夜)  
1 2 3 4 5  
술독삼아 세우고 (무시야)
- 8간 5) 宇太碑伊都宇津有  
1 2 3 4 5 6 7 8  
노래하면서
- 8간 6) 可阿美祁禮衣賀毛志 (牟志伊夜)  
1 2 3 4 5 6 7 8  
술 빛어 내었으리 (무시야)
- 6간 7) 万比伊伊都宇都宇  
1 2 3 4 5 6  
춤추면서
- 9간 8) 可阿美祁牟禮衣可毛之 (无志伊夜)  
1 2 3 4 5 6 7 8 1  
술 빛어 내었으리 (무시야)
- 6간 9) 許乃美伊支伊夷能於  
1 2 3 4 5 6  
이 귀한 술은
- 7간 10) (御酒の의 소멸) 阿也阿爾伊移伊移伊伊  
1 2 3 4 5 6 7  
아야
- 8간 11) 宇太乃於志佐阿阿阿  
1 2 3 4 5 6 7 8



참으로 좋네 자자  
 8간 12) 阿佐阿阿宇多多乃於 (无志伊夜) — 종말반복구  
 1 2 3 4 5 6 7 8  
 참으로 좋네 (무시아)

위 악보가사에 의하여 단위악구율의 간체제에 따른 정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9개간을 이룬 제8구의 유일한 과간현상(過間現象)을 제외한 모든 구는 8간 이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8구와 제9구가 포함된 제4연의 합은 15간이기 때문에 제8구의 9간은 정형에서 근원적으로 이탈한 과간현상은 아니다. 제8구의 9간중에서 제1간은 제7구말에 올려 붙여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권주가」가 지닌 8간체제의 정형과 본가의 제8구를 제외한 8간체제의 정형에 의하면, 감탄사는 단위악구의 8간체제 안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인식된 것은 「권주가」와 동일하다.

③ 후소절의 구길이에 있어서 「신라가」는 배악구의 규모에 준한 길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가에서는 이 후소절의 배악구들도 모두 8간 이하로 단위악구화한 점은 「권주가」와 동일하다.

결국 제8구를 제외한 본가의 모든 악구는 8간 이하에 해당하지만, 제8구를 포함한 모든 연은 16간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가 또한 8간체제화의 완결된 모습을 지녔다.

### (3) 사뇌가형과 주좌가형의 친연성

사뇌가와 「주좌가」의 친연성은 먼저 인적 배경에서부터 드러난다. 「사주가」를 직접 노래한 것으로 기록된 무내숙네(武內宿禰)는 6세기초~7세

기 중엽에 걸쳐서 대화조정(大和朝廷)의 실권을 장악하고 세습해온 소아씨(蘇我氏) 출신의 권력자들을 모델로 하여 가공된 전승적 인물로서, 그와 관련된 전승 내용은 소아씨(蘇我氏)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그리고 일본에서 실존했던 인물로서 소아씨 최초의 조상인 '소아만지(蘇我滿智)'는 곧 백제계(百濟系) 도일인(渡日人) '목만치(木滿致)'인데, 그는 백제의 장군 '목라근자(木羅斤資)'와 신라(新羅)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sup>9)</sup> 그렇다면 고대 일본에서 궁중의 의식가요에 해당하였던 「주좌가」가 무내숙네에 의해서 노래되었다는 전승은, 바로 이 「주좌가」가 백제계의 유력씨족 즉 한국계 도일인(渡日人)들이 지녀온 전승가요에서 연원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형태상의 친연성을 살핀다. 「주좌가」의 문형은 「신라가」 문형보다 1개구가 많은 11구체형으로서 차이를 보이지만, 곡형(曲形)은 공통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상호간 형태적 친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소절에 나타난 <선반복(先反復)>과 <종반복(終反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가보 「신라가」 후소절의 보면가사

- 9) 試夜 己受宇宇已於曾 ————— 선반복 전구  
 1 2 3 4 5 6 7  
 (시아) 오늘밤이야
- 10) 己受己於於於於於於於曾伊母爾移伊移伊 — 선반복 후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오늘밤이야 아내에게
- 11) 夜須宇久波太布宇禮亞亞亞亞亞 ————— 종반복 전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맘껏 살을 맞대자

8) 志田詢一, 『古代氏族の性格 傳承』(雄山閣, 1985), 90쪽.  
 9) 김중규, 앞의 책, 182~187쪽.

12) 夜須宇久波太布禮 ————— 종반복 후구  
 1 2 3 4 5 6 7  
 맑겿 살을 맞대자

금가보 「권주가」 후소절의 보면가사

8간 11) 万都理伊伊許於於之伊  
 1 2 3 4 5 6 7 8  
 바쳐 올리는

4간 12) 美吉伊敍於於於  
 1 2 3 4  
 귀한 술

7간 13) 阿佐受遠西佐阿阿阿 ————— 종반복 전구  
 1 2 3 4 5 6 7  
 남김없이 드오 자자

7간 14) 佐阿阿佐受遠西 (亞夜) ————— 종반복 후구  
 1 2 3 4 5 6 7  
 남김없이 드오 (에야)

고사기 「사주가」 후소절의 가사

┌ 9) この御酒の ————— 선반복 전구  
 | 이 귀한 술은

└ 10) 御酒のあやに ————— 선반복 후구  
 귀한 술은 아야

┌ 11) 甚樂し ささ  
 | 참으로 좋네 자자

└ 12) (종반복 후구는 문형기록에서 생략됨)

위에 나타난 고사기 「사주가」 후소절의 형태를 「신라가」의 후소절 형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성이 드러난다.

① 금가보 「권주가」 후소절의 제13구와 제14구에 나타난 바 〈중반복〉이 존재하는 것은 금가보 「신라가」 후소절의 제11구와 제12구에 나타난 〈중반복〉과 공통된다. 금가보 「사주가 의 후소절에도 제11구와 제12구에 나타난 바 〈중반복〉이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② 원형의 주좌가」 후소절에도 금가보 「신라가 후소절과 공통된 〈선반복〉이 존재하였음이 드러난다. 즉 712년에 기록된 고사기 「사주가」 후소절의 제9구 및 제10구의 ‘御酒の(귀한 술)’는 〈선반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사기 「사주가」에 〈중반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형의 기록에서는 반복과 같은 곡형부의 기록이 생략되는 일반적 관행 때문이다.

③ 〈선반복〉은 260 여년 후인 981년에 기록된 금가보 주좌가」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즉 금가보 「권주가 의 선반복 후구인 제12구가 ‘美吉伊敍於於於(귀한 술)’로, 그리고 금가보 「사주가 에서는 선반복 후구인 제10구가 阿也爾移伊伊(あやに)’로 변화함으로써 〈선반복의 해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후대에 와서 〈선반복의 해체〉가 이루어진 것은 사네가형이 고대 일본에 들어가서 적응해 가는 동안에 나타난 변화 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고찰된 바 있다.<sup>10)</sup>

④ 고사기 「사주가 의 あやに[a yani]에 대하여 산로평사랑(山路平四郎)은 감탄사 ‘あや[a ya]’에 ‘に[ni]’가 부가되어 이루어진 부사로 파악하였다.<sup>11)</sup> 따라서 이 감탄사 ‘あや[a ya]’가 「사주가」 보편가사에서 그 가명이 ‘아야(阿也)’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 그 존재하는 위치가 「사주가」의 후소절인 점을 아울러 보면, 이는 사네가의 감탄부 ‘아야(阿也)’와 공통된 어원의 감탄사로 볼 수 있다.

이상은 「주좌가 즉 권주가」 및 「사주가 의 형태가 신라가」 형태로부

10) 김종규, 앞의 책, 203~208쪽.

11) 山路平四郎, 『記紀歌謠評釋』(三秀舎, 1973), 95쪽.

터 근원하여 발전된 변화형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주좌가」 양가의 곡형은 공통되게 구수율 (4.4.4)의 12구체 3장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이 형태는, 후대에 〈선반복의 해체〉라는 부분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근원적으로는 「신라가」의 곡형인 구수율 (4.4.4)의 12구체 3장구조와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형에서 「신라가」보다 「주좌가」 2수가 1개구 많아져서 11구체형으로 증구된 것이 다를 뿐, 양가의 곡형은 12구체형의 동일한 구수율을 지닌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신라가형〉이 보다 원형적 형태이며 〈주좌가형〉은 그 원형으로부터 발달한 변화형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신라가형〉이 사뇌가형의 형태적 계승이라는 전제에 따라서, 〈주좌가형〉도 사뇌가형의 형태적 계승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좌가형〉에 존재하는 8간체제 단위악구율에 근거하여 사뇌가형의 단위악구율 또한 8간체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4. 결어

이왕의 고찰에서 고대일본의 단식기장가(單式記紀長歌) 중에서 2/3 이상이 8구체 향가 및 사뇌가의 형태적 계승관계에 있는 것으로 고찰된 바 있다. 이러한 친연성에 바탕하여 고대일본의 금가보(琴歌譜) 장가에 속하는 「신라가」와 그 발전형에 속하는 「주좌가」 즉 「권주가」와 「사주가」까지 모두 3수의 『금가보』 악보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것들 금가보 장가 3수가 지닌 단위악구(單位樂句)의 정형률이 지닌 실상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신라가」는 8간체제(八間體裁) 위주의 보편적 단위악구율을 지녔던 것이다. 나아가 「신라가」에 남아 있던 후소절의 배악구(倍樂句)를 비롯한 모든 악구가 「권주가」 및 「사주」에 와서는 완벽한 8간체제로 변화함으로써 보편적 단위악구율이 확립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기장가 및 금가보 장가의 대부분이 8구체 향가형 및 사뇌가형의 대부분이 형태적 계승이라는 고찰 결과에 근거하여, 사뇌가들이 지닌 가락도 그 악구의 길이가 8간체제 위주의 보편적 단위악구율이라는 정형률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향가에 있어서 8간체제 위주의 단위악구율은 후대의 고려가요형 및 시조형의 고시가 악보에 나타난 바 1행강(一行綱)의 6대강(六大綱) 16정간(十六井間) 체제중에서, 그 반절(半折)에 해당하는 3대강(三大綱) 8정간(八井間) 체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임을 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새로운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 ■ 참고문헌

『古事記』

『日本書紀』

『琴歌譜』

김선풍, 「한국시가의 형태적 고찰」, 『아세아연구』45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김종규, 『향가의 형식』, 도서출판 대한, 1994.

\_\_\_\_\_, 『향가문학연구』, 경인문화사, 2003.

김준영, 『한국고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90.

양태순, 「고려 속요와 악곡과의 관계」, 『고려가요. 악장 연구』, 태학사, 1997.

이병기, 「시용향악보의 한 고찰」, 국어국문학 총서 2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82.

황준연, 「대엽에 대한 연구」, 『예술논문집』, 1985.

山路平四郎, 『記紀歌謠評釋』, 三秀舎, 1973.

土橋寛, 小西甚一 교주, 『고대가요집』, 岩派書店, 1980.

土田杏村, 『上代の歌論』, 『國文學の哲學的 研究』, 第一書房, 1929.  
横山青娥, 『日本詩歌の形態學的 研究』, 武藏野書院, 1961.  
志田詢一, 『古代氏族の性格と 傳承』, 雄山閣, 1985.

<투고일 : 2006. 12. 30. 심사일 : 2007. 1. 29. 심사완료일 : 2007. 2.9.>

〈Abstract〉

## The Rythms of Unit phrase in Hyangga Observe get through a Music book

Kim, Jong-Gyu

Hyangga was a main origin of korean classical lyric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its form, not much has been achieved. The reason is mainly beacouse there have not been enough materials left in korea for studying korean classical lyrics.

On the otherhand, japan has many materials for this. Among those, there are materials closly related to Sanoyga. We can figure out the features of Sanoyga particularly by studying music books of japan in the late 10th century. We also see the later development of Sanoyga.

Based on this development, we can show that lirics and rythms of Koryeogayo, which is a later development of Sanoyga, has developed to Sijo. We claim that it is possible to build up a main branch of korean classical lyrics which originated in Hyangga and developed to Sijo.

**Key word** : Unit phrase, Sanoyga, 〈Sillaga〉.



